

善行과 救援의 연관성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good deed and salvation

김 재 천

(한국, 대진대학교)

《 Abstract 》

Why do religions emphasize good deeds like charity or love? What kind of relation are there between good deeds and salvation? Early Buddhism stresses that the deed of mortal cannot escape retribution. And deeds are intentional act, so those are representation of mind. Therefore an issue of mind raises its head before action. The extinction of ignorance and thirsty gives rise to good mind, and the good mind produces good deed. Mahāyāna Buddhism accentuates charity. It signifies that the mind of oneself sympathizes the mind of others. That is impossible unless one throws away attachment to oneself. The alms deed makes that possible. In Roman Catholicism Ten Commandments assert absolute worship to god. The transcendental merits devaluate worldly ones, so the mind can obtain calmness. Protestant claims the one can acquire salvation only by faith. And the salvation leads human to good deed.

In conclusion good deeds are not ways and means to mokṣa or grace, but identical with them in Early Buddhism and Mahāyāna Buddhism, and Roman Catholicism and Protestant.

※Key words: good deed, salvation, karma, commandment, charity, love
선행, 구원, 사랑, 공덕, 은총

I. 머리말

종교는 이 세상에 대한 단순한 이해나 통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 태도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질적 변화를 야기할 때 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에는 윤리적 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종교적인 삶은 도덕적인 삶으로 실천이 되고, 도덕적인 삶의 기반은 종교에

있기도 한 것이다.¹⁾ 일반적으로 윤리·도덕과 종교적 구원은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대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자는 인간의 실제 생활에 관여하여 가치적 삶을 영위하는데 공통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²⁾ 종교와 도덕은 상호 본질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의지하여 도움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먼저 도덕이 종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보자.³⁾

첫째, 종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도덕이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성스러움의 가치는 도덕적 정화의 노력 없이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적 가치 체험과 윤리적 가치 체험은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즉 성스러운 의지의 드러남은 선행을 하는 양심의 목소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셋째, 도덕은 종교에 표현과 작용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종교적 절대성의 세계는 이성적, 논리적 파악의 대상이 아니지만, 도덕적 규범은 그것을 인식하고 해명하고 절대의 신성함을 추구하도록 북돋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는 도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와 그 타당성은 무엇인가.⁴⁾

첫째, 종교는 도덕의 실천 동기를 촉진시킨다. 도덕은 명령과 금지의 단순한 법칙에 불과하지만 종교는 그 법칙의 배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은 종교에서 제시하는 성스러움의 세계에 대한 신앙에서 자발적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둘째, 종교는 도덕의 가치 내용을 풍성하게 한다. 종교는 도덕의 심층적 내용과 자연과 도덕에 대한 의경과 겸허, 그리고 순수와 사랑과 선함의 덕목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종교는 실천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이론적인 면에서도 도덕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 종교에서 제공하는 형이상학적 근거를 통해 도덕적 가치의 실천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교는 도덕적 실천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양자의 관계에 대해 무신론의 불교와 그와 대조적인 유일신론의 기독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도덕적 선행이 직접적으로 종교적 구원을

1) 나학진, <동서 종교 윤리의 비교>, 《종교와 윤리》,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6쪽.

2) 최재희, 《윤리학원론》, 서울, 일신사, 1978, 203-205쪽 참조.

3) J. 헤센, 허재운 옮김,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5, 70-76쪽.

4) 위의 책, 76-81쪽.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공통분모를 찾아보고자 한다. 단지 불교와 기독교의 교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매우 복잡다단하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사상을 표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논문은 시론적인 제한성을 갖고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II. 불교의 구원관

1. 초기 · 부파불교 ... 업과 과보

불교의 교리는 대단히 精緻하고 방대하지만, 그것을 단순 소박하게 표현하면 ‘어떠한 악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7佛通戒偈)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한마디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죄 짓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업의 이론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업은 행위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善因善果 惡因惡果 또는 善因樂果 惡因苦果의 이론이다. 행위에는 身·口·意 3가지가 있으며, 이에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思業과 思已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⁵⁾ 여기서 思(cetanā)는 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육체의 행위도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성격과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행위는 마음의 표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고, 따라서 선악의 기준은 마음에서 찾아야 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의미는 무엇인가.⁶⁾

善(kuśala)은 不善(akuśala), 또는 惡(pāpa)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악이란 것은 구체적 5악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妄語, 不飲酒의 5계를 어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선은 福(puṇya)이라고도 하는데 세속적인 선행을 말하며 無漏 出世間적인 善과는 구별되고 있다. 여기서 2가지 문제를 도출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악의 근원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는 선의 분류에 대한 것이다.

먼저 불교에서 의미하는 악은 이러한 악행이 생겨나는 근원을 문제로 삼는다. 그 근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악한 마음 즉 煩惱(kleśa)라는 개념이다. 번뇌는 結·縛·纏·隨眠·漏·瀑流·軛·取·身繫·蓋·隨煩惱라고도 하며, 欲貪·

5) 목정배 편저, 《불교윤리개설》, 서울, 경서원, 1986, 80-81쪽.

6) 위의 책, 38-43쪽.

瞋·見·疑·有貪·無明 등 7가지를 근본번뇌로 하여 98수면설이 성립되고 있다.⁷⁾ 여기서 隨眠(anuśaya)이란 기질이나 경향 또는 성향을 의미하며 특히 나쁜 성향이나 자질을 뜻한다. 즉 번뇌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악행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貪·瞋·癡라는 3毒 또는 3火를 들 수도 있다. 이것은 無明(avidyā)과 渴愛(trṣṇ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전자는 知的 迷惑, 후자는 情的 미혹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악행의 근원은 무지라는 지혜의 결여와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情意的인 마음의 미혹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무지와 욕망이 서로 엉켜 인간의 구체적인 악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탐진치는 3不善根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명과 갈애가 근본악,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씻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교의 근본진리인 緣起法이 등장하게 된다. 즉 존재의 相依相關性을 뜻하는 연기에 대한 무지가 무명과 갈애를 낳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깨달음은 즉시 3독을 소멸시킴으로써 不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止惡修善이라는 실천적 수도는 無貪, 無瞋, 無癡라는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과 병행하여 모든 악의 근원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마음의 청정은 자연스럽게 선행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과 악의 기준과 분류에 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궁극적 진리를 표방하는 종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속의 도덕적 기준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⁸⁾

- (1) 勝義善: 해탈, 열반(nirvāṇa), 最極安穩하여 중생의 고통을 영원히 寂滅한다. 소위 無漏 出世間的 진리와 하나가 되어 나오는 선으로, 세속적인 선과는 차원이 다른 선이라고 할 수 있다.
- (2) 自性善: 유정세계의 선으로 상대적이고 이차적 의미의 선이다. 無貪·無瞋·無癡의 3善根과 慚·愧의 5가지가 있다. 이들은 그 자체가 선이며 동시에 다른 것에 작용하여 그것들을 선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
- (3) 相應善: 자성선과 상응하는 마음에 있는 선의 성질을 가리킨다.
- (4) 等起善: 身·語業은 마음에 의해 일어나므로 마음에 상응하는 선이나 불선에 따라서 신업이나 어업도 선이나 악의 성질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세속적인 선은 자성선과 근본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다. ‘무탐’은 마음에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심리적 자제력을 가리키고, ‘무진’은 분노를 참는 힘을 말

7) 권오민, 《아비달마불교》, 서울, 민족사, 2003, 192-193쪽.

8) 목정배 편저, 앞의 책, 111-118쪽 / 권오민, 위의 책, 75-81쪽.

하며, ‘무치’는 연기와 악에 대한 무지를 각성을 하는 것이다. ‘참’은 戒·定·慧의 공덕이 있는 자를 공경하는 것, 또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의식작용이다. 그리고 ‘괴’는 공덕이 있는 자의 꾸짖음이나 죄과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거나, 남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리킨다.

2. 대승불교 … 공덕과 회향

대승불교에서는 복덕을 많이 쌓으면 언젠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공리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般若空觀에 의한 自利利他的 강력한 실천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초기불교에서도 설하고 있지만, 대승불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4無量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慈悲喜捨의 마음을 한없이 일으켜 모든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禪定에 의해 닦아야할 이타심으로, 그것에 의해 중생에게 무량의 복을 가져오고, 스스로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한다.⁹⁾ 이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慈(maitrī): 우애의 마음, 중생에게 樂을 주는 것이 무량하며, 자애로움을 말한다.
- (2) 悲(karuṇā): 타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 중생의 고통을 구원하는 것이 무량하며, 同情이라고 할 수 있다.
- (3) 喜(mudita): 타자의 행복에 대한 기쁨, 중생에게 낙이 있음을 질투하지 않는 것이 무량하며, 기쁨을 가리킨다.
- (4) 捨(upekṣā): 모든 집착을 버림, 怨親 등의 차별상을 버려 평등하게 돕는 것이 무량하며, 平定心을 뜻한다.

여기서 ‘무량’이라고 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유정을 대상으로 삼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낳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과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들 4가지는 남을 미워하고, 해치고자 하며, 기뻐하지 않으며, 온갖 대상에 대해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등의 세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장애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설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니르바나(nirvāṇa)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6가지 덕목, 즉 彼岸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는 6波羅蜜(pāramita)을 들고 있는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¹⁰⁾

9)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佛敎語大辭典》, 東京, 東京書籍株式會社, 1981, 533頁 / 권오민, 앞의 책, 311-312쪽.

10)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위의 책, 1463頁, 참조.

- (1) 布施(dāna): 여기에는 재물을 주는 財施, 진리를 가르치는 法施, 공포를 제거하고 안심을 주는 無畏施 등 셋이 있다.
- (2) 持戒(śīla): 10善業을 가리킨다.
- (3) 忍辱(kṣānti):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한다.
- (4) 精進(vīrya): 진실한 길을 방심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 (5) 禪定(dhyāna): 정신을 통일하여 안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 (6) 智慧(prajñā): 진실한 지혜를 얻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보시바라밀’이 첫째 덕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8정도의 첫째 항목이 正見인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정신적, 물질적인 무조건적 施與를 뜻하고 있다. 그리고 ‘지계바라밀’은 직접 행위와 관련하여 그 과실과 공덕이 막중한 것으로 10業道を 들고 있는데, 이는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¹⁾

- (1) 身善業: 신체로 하는 행위로서, 남을 해치는 殺生과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려는 不與取(偷盜), 그리고 그릇된 방식으로 이성을 취하는 欲邪行(邪婬)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 (2) 口善業: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하는 말인 虛狂語(妄語), 남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말인 離間語(兩舌), 남을 헐뜯기 위해 하는 아름답지 못한 말인 麤惡語(惡口), 그리고 진실이 아닌 온갖 더러운 말인 雜穢語(綺語)를 발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3) 意善業: 貪慾, 瞋恚(화내는 마음), 邪見(삳된 견해)을 떠난 생각이 이것이다.

이 6바라밀은 空의 실천이라는 면에서 緣起(pratītya-samutpāda)·空(śūnyatā)의 진리의 세계가 세속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선으로 발현되는 것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¹²⁾ 즉 진리와 사마가 하나로 융합하여 眞俗不二的 대공정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승불교에서는 이전의 부파불교와 달리 회향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훌륭한 德性이나 福德, 또는 善行을 의미하는 功德(guṇa, puṇya)을 쌓아,

여기에 다음에 4가지를 더하여 10波羅蜜이라고 한다.

- (7) 方便: 여러 가지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
- (8) 願: 항상 誓願을 세워 그것을 실현하는 것.
- (9) 力: 선행을 실천하는 힘과 진위를 판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
- (10) 智: 있는 그대로 일체의 진실을 통찰하는 지혜를 키우는 것.

11) 권오민, 앞의 책, 152-153쪽.

12) 목정배 편저, 앞의 책, 139-145쪽.

그것을 다른 이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廻轉趣向, 또는 줄여서 廻向(回向, pariṇāmanā)이다.¹³⁾ 다시 말하면 자기가 행한 善根(kuśala mūla)을 돌려 일체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닦은 善行·공덕을 깨달음을 향해 돌리는 행위로서 불교의 선행이 세속적인 도덕관을 초월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10회향(보살이 닦아야 할 52 단계 중, 제 31위에서 40위까지를 가리키며 자신이 닦은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돌려보내는 것. 《화엄경》)’에서 그 절정에 달하고 있다. 업설에서는 선악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衆生 救濟라는 대전제에서 선업의 방향과 내용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이는 윤회와 업보를 초월하는 구원의 대 염원이 절실하게 배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기독교의 구원관

1. 천주교 ... 계명과 은총

기독교의 유일신관은 모세의 10誠命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10계명은 그에 뒤이은 70여개 법규들(〈출애굽기〉 20:22-23:33)의 근간이자 선민의 삶 전체를 망라한 하느님의 절대명령이고,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축복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이다.¹⁶⁾ 따라서 10계명의 이해는 기독교 윤리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분류에 따라 열거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¹⁷⁾

-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그와 동시에 미신적인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을 부를 때는 정성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그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예배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3)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앞의 책, 102-103頁, 참조.

14) 가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 김재천 옮김, 《대승과 회향》, 서울, 여래, 2002, 166-171쪽.

15) 〈출애굽기〉 20:2-17, 〈신명기〉 5:6-22.

16) 《라이프성경》, 113쪽.

17) 박도식 엮음, 《가톨릭 교리 사전》,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0, 199-213쪽.

- (4)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는 자녀를 낳아 기르고 교육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언제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양육되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서로 가정의 화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남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한 자신의 육신과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
- (6) 간음하지 마라: 모든 姦淫과 邪婬 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한 행동까지도 금하는 것이다.
-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주인의 뜻을 거슬러 갖는 것을 뜻한다.
-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말로 남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하며, 명예를 보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남의 非行을 이유 없이 남에게 말하거나, 위증이나 모함, 이간질, 모욕, 잘못된 판단, 비밀 누설 등이 포함된다.
-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는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을 마음에서도 일으키지 말라는 의미이다.
-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남의 재산을 착취하고자 하는 생각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 아홉 번째와 열 번째 계율은 특히 마음의 죄를 중시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모든 죄의 근원이 주로 性慾과 物慾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천주교에서는 인간이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모든 윤리행위의 기본이 되는 4가지 중추적 덕목, 즉 4樞德(virtutes cardinales)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¹⁸⁾

- (1) 叡智(신중, prudence): 매사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식별하여,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모든 판단 능력의 핵심이 되는 지능 계발의 원천이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것이 결비되지 않고는 정당한 윤리행위를 할 수 없다.
- (2) 正義(공의, justice): 모든 윤리행위의 총체로서, 모든 것을 의롭게 처리하는 윤리도덕의 기본이다. 이에 교환 정의, 법적 정의, 분배 정의 등이 있다.
- (3) 勇氣(force): 선행이나 진리 앞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시련을 극복하면서 관철하는 인내심, 항구심을 갖춘 습성이다.
- (4) 節制(temperance): 식욕, 성욕 등에 대한 절제와 정결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들이다.

18) 박도식 엮음, 앞의 책, 126-127쪽 / N. L. 가이슬러 외, 라온성 옮김, 《로마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서울, 그리스심, 2003, 192-196쪽.

그런데 위에 든 4가지 온당한 덕행은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신적 덕행으로 向主三德을 들고 있다.¹⁹⁾ 그것은 信德·望德·愛德으로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고 구원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 (1) 믿음: 천국의 영원한 삶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만, 소망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 믿음이 제일 앞에 있는 이유는 마음이 바라고 사랑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소망: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며, 소유하지 못한 것을 향한 움직임을 가리키고 있다.
- (3) 사랑: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서 완성된다. 천국에서도 계속되며 믿음과 바람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과 자비에 의해 완전한 상태에 이르며,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3덕은 인간의 의지적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恩寵(grace, gratia)은 인간의 영생을 위해 하느님이 온전히 공으로 주는 초자연적 은혜이며,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 그것은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는 하느님의 선물인 것이다. 현재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생명을 위한 은혜, 기도와 성사로써 은혜를 받는 초자연적 은혜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²⁰⁾

첫째, 도움의 은총(actual grace): 인간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하느님의 초월적인 은혜, 선행을 하고 악행을 피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준다. 이를 통해 선의 가치를 알게 하고 죄악의 더러움을 알게 해주며, 인간의 의지를 움직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게 한다. 한 인간이 의인의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일생을 통해서 큰 죄 없이 올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생명의 은총: 常存은총, 義化은총이라고도 한다. 이 속에서 인간이 선행을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초자연적 공로를 세울 수 있다. 인간 구원의 절대조건으로, 이것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는 세례성사로 처음 받게 된다. 대죄를 범하면 모두 잃게 되고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上等痛悔(contrition: 자신이 벌받는 것보다 상대방을 위주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아픔에서 나오는 후회)나 告解聖事(sacrament

19) 박도식 엮음, 앞의 책, 311-312쪽 / N. L. 가이슬러 외, 라온성 옮김, 앞의 책, 196-199쪽.

20) 박도식 엮음, 앞의 책, 243-245쪽.

of penance: 세례 후에 범한 모든 죄를 사하는 성사)를 받아 대죄를 씻어야 한다.

은총을 받기 위한 인간의 선행과 노력을 천주교에서는 功勞(merit)라고 하는데, 이에 2가지가 있다.²¹⁾

첫째, 자연 공로: 사회생활을 통해서 남긴 많은 공적을 말하며, 세속의 일반적인 선행을 뜻한다. 둘째, 초자연적 공로: 하느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며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①선행을 해야 한다. 의지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하는 착한 행동이다. ②선행을 하되 인간적 세속적 동기로 하지 않고 하느님을 위한 초월적인 지향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한 동기로 한다면 초자연적 공로가 될 수 없다. ③선행을 하느님을 위해서 하되 은총상태에서 해야 한다. 은총상태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하느님과 영적 생명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대죄 중에 있으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자연공로는 될 수 있지만,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공로는 될 수 없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죄에는 원죄와 본죄가 있으며, 본죄에는 다시 대죄, 소죄가 있다. 소죄라는 것은 인간적 나약함과 결함으로 일상 속에서 범하는 사소한 죄이며, 이는 성덕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기는 하지만, 영성체도 할 수 있고 선행을 해서 공로를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대죄는 하느님과 완전히 차단되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로도 없어지고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으로 직행하므로 고해성사로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한다.²²⁾ 성서에 나타난 죄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分離)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19-21)라고 한 것처럼, 음행, 추행, 방탕, 우상 숭배, 마술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극악한 죄인 살인, 강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2. 개신교 ... 칭의와 사랑

개신교에서는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의롭게 된다’고 하여, 천주교의 선행으로 인한 稱義(justification)의 초자연적 보상을 반대하고 있다.²³⁾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에서 ‘以信稱義’를 주장하고 있다.²⁴⁾ ‘칭의’라는 말

21) 박도식 엮음, 앞의 책, 19-20쪽.

22) 위의 책, 264쪽.

은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의롭거나 정당하다’는 것보다는 ‘어느 사람이 법에 일치한다고 법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이다. 즉 의로워서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판사에 의해 선언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이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무죄’를 뜻한다. 인간에게 칭의가 필요한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고,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고립적이지 않다고 한다.²⁵⁾ 믿음은 선행을 필연적으로 산출하므로 행위는 칭의의 조건이 아니고 그 결과라는 것이다.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과 짝하는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고 구원인 것이다. 이러한 개신교의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음에 제시하는 칼빈(John Calvin)의 5대 교리이다.²⁶⁾

- (1) 전적 타락, 무능력(total depravity, inability):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모든 인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무능력은 영적인 무능력을 가리키며 어떤 영적인 선행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인간적 기준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소질과 덕행을 행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선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2)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버림받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을,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선택한다. 선택되고 선택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하느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 (3) 제한된 속죄(limited atonement): 선택 자체는 구원이 아니라 특정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표시에 불과하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救贖을 받아야 하니, 그 代贖을 위해 그리스도가 지상에 강림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 (4)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일체 하느님은 함께 죄인들의 구원에 참여하고 공헌한다. 성령이 택한 자에게 주는 은혜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결코 실패하지도 않는다.

23) N. L. 가이슬러 외, 라온성 옮김, 앞의 책, 321-322쪽.

24) 위의 책, 354-359쪽.

25) 위의 책, 347-348쪽.

26) 김우영, 《칼빈과 웨슬레, 장로교와 감리교 무엇이 다른가?》, 서울, 프리셋트, 2001, 31-46쪽.

- (5) 성인의 堅引(perseverance of the saints): 선택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성령에 의해 重生을 입으며, 하느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인해 신앙을 지킨다.

이러한 칼빈의 예정설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그 토대로 하고 있다. 가령 성경에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6-40)라고 한 것은 신과 자신과 이웃을 조건없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상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린도전서〉 13:13)고 한 데에서 그 정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성스러움의 길을 좇아야 하는 것임을 성경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聖靈)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갈라디아서〉 5:16-18)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청정과 순수한 신앙심이 무조건적 사랑의 조건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종교에서는 자비나 사랑과 같은 선행을 왜 강조하는가? 이에 대한 심리학적, 윤리학적, 사회학적, 생물학적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 자체의 해명일 것이다. 초기·부파불교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좋은 원인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은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얻기 위한 의지적 행위이므로 그것은 마음에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에 앞서 마음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번뇌와 무명과 같애는 탐·진·치로 나타나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무명과 같애의 소멸이 바로 선한 마음을 낳고, 그 선한 마음이 선한 행위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행은 역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행과 마음문제의 해결은 동시적인 것이며 동전의 앞뒷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자비와 자리아타를 강조하는데, 이는 타인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과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갖고 있는 한, 타인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6바라밀의 첫째 덕목으로서 보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집착을 떠나게 되면 청정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청정한 마음이 열리면 그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의 진리와 합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은 열반의 실천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10계명에서 처음 세 계명은 신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신에게 바치는 절대복종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한 한없는 욕심과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한 온갖 고뇌와 번뇌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인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게 된다. 세속적 가치는 초세속적 가치에 의해 평가절하된 것이고, 이로 인해 마음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10계명은 사회적 도덕적 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적 덕행이라고 하는 믿음·소망·사랑으로 이어져 계승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언뜻 보기에 선행과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구원 자체가 당연히 인간으로 하여금 선행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단지 구원의 전제조건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면, 이는 신에 대해 인간이 조건을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 종교에서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선행은 해탈이나 은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해탈이나 은총과 같은 것, 또는 동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가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 김재천 옮김, 《대승과 회향》, 서울, 여래, 2002.
- 권오민, 《아비달마불교》, 서울, 민족사, 2003.
- 김우영, 《갈빈과 웨슬레, 장로교와 감리교 무엇이 다른가?》, 서울, 프리셋트, 2001.
- 나학진 외, 《종교와 윤리》,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릭 존스 외, 정동수·박노찬 역, 《천주교가 기독교와 다른 37가지 이유》, 서울, 말씀과 만남, 2003.
- 마이클 피터슨 외, 하종호 옮김, 《종교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메이어 펠만, 이희숙 옮김, 《기독교 교리의 이해》, 서울, 나단, 1991.
- 목정배 편저, 《불교윤리개설》, 서울, 경서원, 1986.
- 박도식 엮음, 《가톨릭 교리 사전》,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0.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집문당, 1994.
- 윌리엄 K. 프랑케나, 문정복 역, 《윤리학》, 경상북도,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2.
- 이기영 외, 《한국인의 윤리사상사》, 서울, 학문사, 2000.
- 최재희, 《윤리학원론》, 서울, 일신사, 1978.
- 후지타 코오타츠(藤田宏達) 외, 권오민 옮김, 《초기·부파불교의 역사》, 서울, 민족사, 1989.
-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외, 차차석 옮김, 《법화사상》, 서울, 여래, 1996.
- J. 헤센, 허재윤 옮김,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5.
- N. L. 가이슬러 외, 라은성 옮김, 《로마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서울, 그리스, 2003.
- 유정우, 〈갈빈의 구원론에 나타난 선행의 위치와 중요성〉, 《크리스찬신문》, 2002년 8월 19일-9월 16일자.
- 荻原雲來 編纂, 《梵和大辭典》, 東京, 講談社, 1979.
-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佛教語大辭典》, 東京, 東京書籍株式會社, 1981.
- Monier Monier-Williams,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 가톨릭 검색 사이트: <http://scatholic.cafe24.com>
- 가톨릭 기본교리: <http://ocatholic.cafe24.com/catholic>